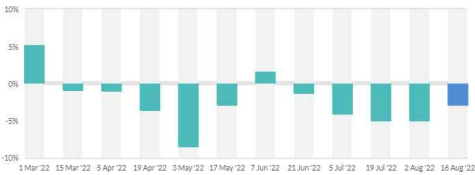




## [가격동향] GDT 유제품 가격 5회 연속 하락세

### - 원유생산량 및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세 이어가

Change in GDT Price Index



#### Summary of Results

Number of Winning Bidders	121	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	
Number of Bidding Rounds	11		
Duration of Trading Event (hours:mins)	1:42	<b>162</b>	
Minimum Supply (MT)	27,820	Quantity sold (MT)	<b>30,326</b>
Maximum Supply (MT)	31,545		

지난 8월 16일 실시된 GDT(세계유제품경매)에서 유제품 가격이 전장 대비 2.9% 떨어지며 5회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. 가격지수 또한 1,129 포인트로 전장대비 3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품목별로는 버터, 체다치즈 및 탈지분유는 전장대비 상승하며 재반등한 반면, 전지분유가 톤당 3,417달러(약 447만원)로 전장대비 3.5% 하락하며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체다치즈는 톤당 5,005달러(약 655만원)로 4.2%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, 버터도 0.2% 상승한 톤당 5,204달러(약 681만원)를 기록하며 재반등했다.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탈지분유도 소폭(0.1%) 상승하며 톤당 3,524달러(약 461만원)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업계관계자는 세계 원유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,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. < 출처 : globaldairytrade.info, 8월 16일 >

## [시장동향] 日, 모차르트 음악 듣고 자란 젖소의 '모차르트 우유' 인기

### - 높은 유지방 함량으로 맛이 풍부하고, 칼슘 및 비타민 함량도 높아



일본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자란 젖소에서 착유한 소위 '모차르트 우유'가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일본 이와지시마 유업의 대표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로 약 10여 년 전부터 자신의 목장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으며, 4년 전부터는 소속 농가에서도 이를 시행해왔다.

그 결과 젖소들의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처럼 온순해지고 친근해졌으며, 해당 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도 유지방 함량이 높아 우유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칼슘 및 비타민 함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, 지난해 4월 본격 상품화되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현재 2만 5천 상자가 판매되었으며, 이와지시마 지역을 시작으로 오사카, 고베, 혼슈 등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고 향후 전국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 < 출처 : asahi.com, 8월 17일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